

성경에 기록된 큰 환난들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시간표

지금까지 ebible fellowship 이라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단체에서 발표한 "심판날 동안의 삶"이라는 소책자 3 개의 공부와 이 단체의 Mr. Chris McCann 이라는 분이 발표한 "왜 2015 년 10 월 7 일에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라는 5 개의 연재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또 이 공부들을 한국말로 녹음하여

ebiblefellowship.com 과 facebook.com/ebiblefellowship 의 facebook.com/pages/한국어-E-Bible-Fellowship/1565656797018840 의 facebook.com/feedsheep 와 1600-furlongs.blogspot.com 등에 올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이 공부들을 하면서 2011 년 5 월 21 일 이전에 ebiblefellowship 이나 family radio 를 통하여 수년 동안 함께 공부하지 않았다면 큰 환난 기간들의 상관관계와 영적인 의미 그리고 숫자 "8400"에 관해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근의 공부 중에서 나온 큰 환난들의 상관관계와 전체 심판 기간에 대해 우리가 2011 년 이전부터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독자들이나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글을 씁니다.

성경에 나타난 큰 환난들

먼저 큰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큰 환난의 희랍어는 스트롱의 성경 용어사전 (Strong's Concordance)의 G3173 의 메가스 (μέγας *megas*)라는 희랍어로 "큰"이라고 (영어로 Great) 주로 번역되었고, G2347 의 쓰립씨스 (θλίψις *thlipsis*)는 "환난"으로 (영어로 Tribulation 이나 Affliction) 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성경 구절은 아래에서 보는 예와 같이 "4 번" 있습니다. (King James version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중 사도행전 7 장 11 절은 영어로 great affliction 으로, 나머지 다른 구절들에서는 great tribulation 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 장 21 절: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도행전 7 장 11 절: "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요한 계시록 2 장 22 절: "불찌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요한 계시록 7 장 14 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위에서 보는 여기에 나와 있는 큰 환난의 사건들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 장 21 절과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환난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는 큰 환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환난으로 마태복음 24 장 21 절의 말씀과 같이, 창세로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오직 한 번뿐인 큰 환난입니다. 사도행전 7 장 11 절에 나오는 큰 환난은, 창세기 45 장 6-13 절에 나오는 7 년간의 기근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7 장 11 절에 큰 환난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가 Great Affliction 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큰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약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Blueletterbible.com 이라는 성경 검색 사이트에서 King James Version 으로 Great Affliction 을 검색하면 위의 사도행전 7 장 11 절 외에 느헤미야 1 장 3 절이 나오고 이 구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열왕기 하 25 장, 역대하 36 장 17-20 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39 장과 52 장에서 언급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글로 검색해 보시죠. 대한성서공회의 성경검색 사이트 (<http://www.bskorea.or.kr/>)에 가셔서 역본 선택을 개역한글로 선택하시고 검색어 키워드 난에 "큰 환난"을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1. [삼상 5:9] :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시라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 2. [느 1:3] :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 3. [마 24:21] :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 4. [눅 21:23] :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 5. [행 7:11] : 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 6. [고후 2:4] :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7. [계 2:22] : 불찌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8. [계 7:14] :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무엘 상 5 장 9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여 그들의 신이 다곤의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의 형상이 파괴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내려지는 형벌을 받게되는 사건을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가드 성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환난을 더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환난은 느헤미야 1 장 3 절에서 큰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돌 (스트롱 성경 용어 사전 H 1419: גַּדּוֹל gä-döle) 라 (스트롱 성경 용어 사전 H7451 רַח rah)와는 다른 큰 파괴 혹은 큰 문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더 합당하며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가 겪는 다른 큰 환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 사무엘 상 5 장 9 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위에 나온 검색결과는 다음의 3 가지 큰 환난을 가리킵니다.

1. 창세기 41 장 - 47 장 (특히 45 장)에 설명된 가나안과 애굽에 내려진 7 년간의 큰 환난
2.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함을 포함한 70 년간의 큰 환난
3. 세상 끝에 있는 23 년간의 큰 환난

이제부터 이 세가지 큰 환난의 기록과 기간, 그리고 상관관계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첨부된 도표를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도표는 2011 년 이전에 심판날을 공부하던 사람들에게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의 정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1. 가나안과 애굽에 든 흉년 (7 년의 큰 환난)

이 역사적 기록은 창세기 41 장에서 창세기 47 장까지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 장 11 절: "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창세기 45 장 6-9 절: " 이 땅에 이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찌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말고 내려오사"

위의 구절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7 년의 흉년으로 인한 기간을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7 년은 야곱이 요셉을 제외한 그의 가족들과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인해 고생한 2 년과 요셉의 강권으로 인해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서 요셉의 보호 아래 지낸 5 년 등 두 기간으로 나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해는 기원전 1879 년이었으며 이스라엘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해가 기원전 1877 년이었고 흉년이 끝난 해는 기원전 1872 년이었습니다.

2.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 (70 년의 큰 환난)

유다는 기원전 609 년에 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후, 이때부터 애굽의 통치를 받았고 그 후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기원전 587 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원전 539 년에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해방 시켜줌으로 70 년 동안의 큰 환난을 끝내게 됩니다. 이에대한 성경 기록은 열왕기 하 23 장, 25 장, 역대 하 36:17-20, 예레미야 39 장, 59 장 등 많은 곳에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 장 29 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므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역대하 36 장 17-20 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 29 장 10 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세한 연대기는 열왕기 하와 역대기 하, 예레미야서 등을 읽어야 하는데 캠핑씨께서 1993 년에 발표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기록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이곳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생략합니다. 심판을 나타내는 숫자인 23 대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2 년인 기원전 587 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기서도 70 년의 큰 환난 중 처음 22 년은 유다에서 환난을 당하고 나중 48 년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환난을 당합니다.

3. 세상 끝에 있는 23 년간의 큰 환난 (교회에 대한 영적 심판)

교회시대는 서기 33 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제사를 폐하시고 구약시대를 단으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쏟아 부어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1000 년(충만한 교회 시대의 연수) 기간이었던 교회시대는 실제로는 1955 년 동안이며 1988 년 5 월 21 일에 끝이 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간은 2300 일이었으며 두 번째 기간은 6100 일로 총 8400 일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정확하게 23 년간 (1988 년 5 월 21 일부터 2011 년 5 월 21 일까지)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설정된 배경이 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몇 구절로 쉽게 설명할 수 없으나 우리가 지난 8 번의 "심판날 동안의 삶"과 "왜 2015 년 10 월 7 일이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에서 자세히 공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말씀 중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 장 14 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 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7 장 4 절: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베드로 후서 3 장 6-8 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마지막 큰 환난 기간도 처음 기간은 2300 주야로 약 6 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요한 계시록 8 장 1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기간은 6100 일로 약 17 년간입니다. 이 17 년간은 교회 밖에서 늦은 비가 내려 큰 무리 (요한 계시록 7 장 9-14 절)가 구원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큰 환난들의 상관관계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은 세상의 끝에 관한 많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2 장에는 세상 끝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 장 11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일을 지낼 것이요"

이 구절에는 히브리서 원본에 없는 말들이 해석하는 중에 첨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와 "지낼 것이요"가 첨가된 해석들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 첨가된 말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차가 1290 일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290 일을 1290 년으로 보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구절들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지난 성경공부들에서 읽었던 민수기 14 장 34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사십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찌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그러면 다니엘서 12 장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는 무엇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24 장 15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찐저)" 또 마가복음 13 장 14 절을 보시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찐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마가복음 13 장 14 절의 말씀도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 장 15 절 말씀처럼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라는 말씀이 있으나 한글 번역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다니엘 12 장

11 절의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곳은 곧 성전인 교회를 의미하는데 1988 년에 (실제로는 1955 년 기간이나 영적으로는 1000 년으로 표현된) 교회시대가 끝나고 사탄이 무저갱에서 놓임을 받아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허락한 교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베드로 전서 4 장 17 절 말씀인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라는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시작하신 시점입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 불의와 속임수로 하나님 대신 사탄을 믿게 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멸망의 가증한 것 (즉 사탄)이 거룩한 곳 (즉 교회 또는 성전)에 앉아 하나님 대신 숭배를 받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4 절과 9-10 절을 읽어보시지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교회가 심판을 받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교회를 떠나셔서 더 이상 교회에는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게 된 것입니다. 1988 년에 시작된 이 심판은 1994 년에 완성되어, 이때는 이미 교회가 완전하게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된 것이며 미운 물건이 세워지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혹은 일상적인 것

그렇다면 매일 드리는 제사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28 장 24 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순서대로 칠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라고 말씀하시고 또 민수기 29 장 6 절에서도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였던 일상적인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의식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7 년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감으로 이 제사는 더이상 지내질 수 없었고 폐하여진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들었던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더 이상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기원전 587년부터 교회가 사탄에게 정복당해 미운 물건이 세워지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 1994년까지인데 이 기간들을 따져보면 $587+1994-1$ (달력에 0인 해가 없기 때문에 1을 뺍니다) = 258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기간이 1290년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1/3 과 2/3

스가랴 13 장 8-9 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지 이는 멸절하고 삼분지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지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이런 1/3 과 2/3 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도우십니다. 사탄의 숫자가 666 인 것도 2/3 를 숫자로 계산하면 소수점 이하로 666 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상징으로서 그 숫자가 2/3 인 666 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

혹시, 우리가 하는 공부에서 성경의 사건들을 어떻게 달력에 맞추어 년도수를 말하는지 궁금하시면 수십년 전에 캠핑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아담은 언제"라는 책자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도표로 돌아가서 도표를 보면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1. 첫번째 큰 환난 (총 7년)

- 가. 시작: 기원전 1879년: 흉년이 시작되고 가나안에서 고통받음
- 나. 변환점: 기원전 1877년: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감
- 다. 끝점: 기원전 1872년: 애굽에서 5년 동안 요셉의 보호아래 고센 땅에서 지냄

2. 두번째 큰 환난 (총 70년)

- 가. 시작: 기원전 609년: 요시아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고 유다가 22년 동안 애굽과 바벨론의 지배를 받음
- 나. 변환점: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짐)

다. 끝점: 기원전 539 년: 바사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하여 48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옴

3. 세번째이자 마지막 큰 환난 (총 23 년)

가. 시작점: 서기 1988 년 5 월 21 일: 교회시대가 끝나고 2300 일의 교회에 대한 심판이 시작됨

나. 변환점: 서기 1994 년 9 월 7 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성전에 확립되고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 쫓겨남

다. 끝점: 서기 2011 년 5 월 21 일: 참으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늦은 비를 맞으며 17 년을 지내고 심판날을 맞음

위의 시간표를 보면 첫 번째 큰 환난의 변환점인 기원전 1877 년부터 두 번째 큰 환난의 변환점이었던 성전의 파괴가 일어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기원전 587 년까지가 정확하게 1290 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큰 환난의 변환점이었던 기원전 587 년부터 마지막인 세 번째 영적 심판의 변환점이었던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1994 년까지 정확하게 2580 년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원계획을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신 1/3 과 2/3 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1290 년 기간은 2580 년 기간의 절반인 것을 알 수 있고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큰 환난들은 1/3 로 표현되는 1290 년의 기간과 2/3 로 표현되는 2580 년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으며 또 이 시기는 다니엘서 12 장의 말씀에 따라 변환점을 중심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정리하고 보니 많은 성경적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큰 환난 기간들은 모두 변환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두 기간으로 나뉘는데 첫번째 기간은 또 약 30% 혹은 약 1/3 의 기간으로 (2/7, 22/70, 6/23)이 되며 두번째 기간은 약 2/3 가 됩니다.

2. 모든 큰 환난의 첫번째 기간은 이스라엘인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 원래 있던 곳에서 환난의 고통을 당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의 흉년으로 인한 고통, 유다가 독립을 잃고 타국들의 지배를 받는 고통, 내면적 유대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교회에서 받는 고통).

3. 모든 환난의 두번째 기간 동안엔 세상 혹은 사탄의 왕국으로 들어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첫번째 큰 환난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

사탄의 왕국 혹은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으로 들어가고, 두번째 큰 환난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유다를 떠나 사탄의 왕국을 대표하는 바벨론으로 들어가며, 세번째 큰 환난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교회를 떠나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4. 첫번째 큰 환난은 7년으로 이것을 개월 수로 환산하면 $7 \times 12 = 84$ 개월이 됩니다. 두번째 큰 환난은 70년으로 이것을 개월 수로 환산하면 $70 \times 12 = 840$ 개월이 됩니다. 세번째 큰 환난은 정확히 23년이며 이것은 정확하게 8400 일입니다.

여기서 8400 일인 23년의 환난 기간과 혹은 심판 기간과 관계있는 사실들 및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창조로 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6000년+23년

나. 창조로 부터 심판날까지: 13000년+23년

다. 다니엘서 8장 13-14 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 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라. 고린도 전서 10장 8 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기서 간음은 영적인 간음을 말함)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 것이 부러워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두 왕국 모두 23번째 왕을 끝으로 멸망을 당함

5. 첫번째 환난기간 7년과 두번째 환난 기간 70년 그리고 세번째 환난 기간 23년을 합하면 100년의 완성된 심판기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의 "심판날 동안의 삶"과 "왜 2015년 10월 7일"이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를 공부하면서 1600일과 10000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했으나 8400일의 심판날에 관해서는 단지 23년의 심판 기간이 8400일이 된다고 공부를 했는데 이 23년의 심판 기간이 어디서 나오며 8400일과의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공부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공부해왔던 $8400+1600=10000$ 이라는 숫자와 그 영적인 의미들을 좀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왜 2015년 10월 7일이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많은지 좀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사실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500여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여 쓰신 성경 말씀이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고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지 그 말씀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저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큰 환난들과 상관관계

다니엘서 12: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온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일을 지낼것어요

기원전 (BC) 1877 - 서기 (AD) 1994 AD: 3870 (1290 x 3) Years (2x3x3x5x43)	
1290 x 1 (1/3)	1290 x 2 (2/3)
1290 년 (1877 B.C. - 587 B.C.)	2580 년 (587 B.C. - 1994 A.D.)

가나안과 애굽에 든 흉년 (7년의 흉년)		
1879 B.C.	1877 B.C.	1872 B.C.
흉년의 시작; 야곱(이스라엘)과 그 가족이 가나안에 있을 때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 흉년이 5년 더 지속됨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보호받음	
7년의 환난이 두 기간으로 나뉘어 짐		
2년	5년	
84개월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 (70년의 환난)		
609 B.C.	587 B.C.	539 B.C.
요시아 왕의 죽음; 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	예루살렘의 파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감	바벨론이 매대와 바사에게 정복당함
70년의 환난이 두 기간으로 나뉘어 짐		
22년	48년	
840개월		

큰 환난; 교회에 대한 영적 심판 (23년의 큰 환난)		
1988년 5월 21일	1994년 9월 7일	2011년 5월 21일
교회시대의 끝	큰 환난의 후반부 17년: 교회 밖에는 늦은비가 내려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음	큰 환난의 끝과 세상에 대한 영적 심판이 시작됨
23년의 큰 환난이 두 기간으로 나뉘어 짐		
6년 (2300 주야)	17년 (6100 일)	
8400 일		

7년간의 흉년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일어나고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흉년을 피하여 기원 전 1877년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감. 큰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흉년을 피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도망하는 것을 묘사하심. 성경구절 참조: 창세기 45:6-9, 13.

70년간의 유다의 환난은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에게 정복당하고 후에 바벨론에 정복당함. 유다(이스라엘)인들이 기원전 587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을 묘사하심. 성경구절 참조: 열왕기 하 25장, 역대하 36장 17-20, 그리고 예레미야서 39장과 52장.

23년간의 마지막 큰 환난. 첫번째 큰 환난의 기간은 1988년 5월 21일(교회시대의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어 2300일 동안(1994년 10월 7일까지) 지속되고 다니엘서 8장 13-14절과 요한 계시록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기간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함. 그 다음 17년간의 기간 동안 교회안에는 영적인 심판이 계속되었으나 교회 밖에서는 늦은비가 내려 심판날인 2011년 5월 21일까지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음.

총 100년의 환난 기간 (7 + 70 + 23)